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1월 3일(화) 제 3429호

김제시, 2027년 축산악취개선 28억 확보

농식품부 공모 전국 13개 시군 선정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 개선 지원
축산농가 환경관리 역량 강화
악취 저감 주민 생활불편 완화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김제시가 선정돼 총사업비 28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도 자체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8개 시·군이 신청해 최종 1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는 216억 원이다. 김제시는 이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28억 4,500만 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김제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의지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깨끗한 축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산은인프라운용 전주에 둥지 전북 금융생태계 확장

집적 금융기관 41곳으로 확대
국민연금공단과 투자 협력 강화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연계 기대
국제센터·제3금융중심지 '탄력'

전북특별자치도는 2일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이 전주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준성 산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소는 민간 금융기관 한 곳이 더 늘어난 데 그치지 않고, 대체투자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PF)을 이끌 거점을 도내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전북 금융 생태계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전주사무소는 국민연금공단과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강화해 투자 협력의 토대를 다지고, 그간 축적한 PF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금융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프라 투자 분야에서 쌓아온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의 전문성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 에너지 등 첨단산업 기반 시설 확충에 힘을 보태고,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에 둥지를 튼 금융기관은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을 포함해 총 41곳으로 늘었다.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축으로 민간 운용사와 수탁은행, 사무관리사, 인프라 전문 운용사 등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지역 금융 생태계가 단단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은인프라자산운용의 PF 역량과 정책금융 노하우가 지역 미래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집적 성과를 발판 삼아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건립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핵심 과제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1개 금융기관이 도내에 자리 잡으며 전북의 금융지도가 날마다 새롭게 그려지고, 자생적 생태계도 탄탄히 갖춰지고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 2일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열린 산은인프라자산운용 전주사무소 개소식에 이원택 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회장, 이준성 산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이 테잎컷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李 대통령 "지방 주도 성장 투자 확대"…820조 예산 편성

202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연내 확정
피지컬AI 등 '3대' 21조3천억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이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대하게 투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균형발전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면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앵커 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 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며 "국가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에는 4조7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道,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초대 임원진 구성 완료

하태승 초대 원장 등 임명장 수여
공모·추천위 심사 거쳐 임원 확정
내년 1월 1일 공식 출범 준비 '박차'
농촌재생·돌봄공동체 등 지원

전북도는 2일 내년 1월 공식 출범을 앞둔 재단법인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의 초대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하태승 초대 원장 등 신임 임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임원은 원장 1명과 비상임 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초대 원장으로 임명된 하태승 원장은 농업·농촌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단의 초기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활성화 정책을 이끌 예정이다.

비상임 이사에는 김현순 전 한국여성농업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 모준근 이삭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서정원 전 한국농수산대학 수석연구원, 한광희 ㈜광희가축약품 대표, 송만섭 전 전북 4-H본부 회장, 최낙진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이 선임됐다. 감사에는 황영훈 로운세무회계 대표가 임명됐다.

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전북농어촌활력재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농촌재생 ▲전북형 돌봄공동체 육성 ▲귀촌인 정착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등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단을 통해 농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원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직원 채용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해 내년 1월 출범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일 전북도청서 열린 (재)전북농어촌활력재단 임명장 수여식에 이원택 지사가 하태승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하태승 신임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귀촌인 정착 지원과 농촌 돌봄공동체 활성화, 농촌 공간 재생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촌재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통해 농어업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의회>

도의회 기획행정위, 내년 본예산 심사 연찬회

2027년 사업 타당성 등 검토
관행·불요불급 편성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2일부터 3일까지 정읍시 일원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기획행정위원들은 소관 실·국 및 기관으로부터 2027년도 신규사업과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불요불급하거나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했다.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과 전북의 미래 성장을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수도권 공급 확대 영향"

리얼미터 조사서 전주보다 1.6%p↑
부정평가 60.1% 긍정과 23.2%p 격차
민주 38.3%·국힘 40.2% 오차 內
조국혁신당 지지율 2년 만 최고치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3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아시아경제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36.9%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월 4주차(38.9%)에서 30%대에 진입한 이후 이번 조사까지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60.1%로 전주대비 2.2%p 하락했다. '잘 모름'은 3.0%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한·독 정상회담 외교 성과와 경상수지 흑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 등 경제지표 개선에 더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긍정 평가의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이 5.6%p가 오른 57.6%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도 33.6%를 기록 3.5%p 올랐다.

인천·경기(36.8%)도 2.2%p 상승했으며 대구·경북(31.6%)도 2.1%p 올랐다. 부산·울산·경남도 34.7%를 기록해 전주보다 1.4%p 상승했다.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8.5%p 하락해 30.6%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6.1%p가 올라 38.9%를 기록했다. 20대도 4.9%p가 오른 30.1%를 기록, 30%대 지지율을 회복했다. 40대(41.1%)는 4.8%p의 상승폭을 보였으며, 60대도 43.1%를 기록하며 4.7%p 상승했다. 반면 50대는 39.1%, 30대는 26.1%를 기록하며 각각 5.7%p, 4.3%p 하락했다.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층에서 3.2%p 상승해 15.9%를 기록했다. 진보층에서는 1.7%p가 올라 53.8%를 기록했다.

지난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8.3%, 국민의힘이 40.2%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달 26~30일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전주比 1.4%p 상승한 8.1%를 기록하며 2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래픽=리얼미터>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3%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조사에서 전주 대비 1.4%p 오른 8.1%를 기록, 2024년 11월 1주차(9.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개혁신당은 2.0%,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6%, 무당층은 8.6%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3.0%였고,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0%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묵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17% 혜택
전북도, 소비 촉진 나서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캐시백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공공배달앱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 혜택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행사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추가 캐시백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최대 1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4개 시·군은 기존 10%에 5%를 추가해 총 15%,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은 기존 12%에 5%를 추가해 총 17%의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시·군별 선할인·후캐시백 적용 방식과 별도 이벤트의 중복 적용 여부는 다를 수 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6일까지 기존 7%에서 10%로 할인율이 확대된다.15일까지 총 17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된다. 누적 결제액 3만 원당 응모권 1장이 지급되며, 추첨을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당첨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한다.

공공배달앱에서도 소비촉진 이벤트가 진행된다. 전주맛배달과 배달의명수 등 전국 8개 공공배달앱이 참여해 행사 기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천만 원 규모의 경품을 제공하며, 온누리상품권 최대 30만 원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새마을사업 도로 편입 농지 정리 특례 반영"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과거 새마을사업 때 건설된 도로에 편입된 농지의 지목을 도로용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 농소동 주민 약 70여 명과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하면서 마을 입구 진입로에 편입된 농지가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 공용개시돼 사용되고 있다면 개인 소유권을 이유로 일반인의 도로이용을 방해할 수 없다는 도로법 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당정 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또 "농소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구가 증가하지만 한편으로 우분화 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걱정이 있다"며 "농사와 관련된 의견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원을 청취하고 농소동은 물론 정읍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겪고 있던 애로사항과 정읍시 및 농소동 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있었다. 주요 건의사항은 △올해 쌀 수매량 배정 감축에 대한 조치 △정읍천 농소동 구간 준설 및 친수공간 공원화 △천변 이용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및 정읍시의회 관심 제고 △정문마을 입구 진입로의 개인소유 토지 정리 △소나무재선충 감염에 따른 수종전환 및 예산 확대 등이었다.

윤 의원은 '쌀 수매량 감축 보완조치 요구'에 대해선 "금년 벼 작황이 작년과 유사해 쌀 수급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정부 수매량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며 "현장 수매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쌀 수매 상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가 수매할 때 선급금을 지난해 4만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쌀 가격의 안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대책'에 대해선 "산림청에 요청해 정읍시를 소나무재선충병 관리통제지역으로 최근 지정했고 이제 정읍시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정리할 수 있게 됐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 오목대서 태조 이성계 증전 역사 되살린다

11월 7일 전주한옥마을 일원
황산대첩 승전행렬
무예 퍼포먼스 등 역사 재현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에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기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던 역사의 한장면이 재현된다.

전주시는 오는 7일 경기전 광장과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를 개최한다.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는 1380년(고려 우왕 6년)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격파한 이성계가 승전 후 전주 오목대에서 장군들과 승전의 기쁨을 나눴다는 전승을 바탕으로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3회째를 맞이한 올해 행사는 전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행사 및 황산대첩 무예 퍼포먼스(경기전 광장) △전승행렬(경기전 광장-태조로-오목대) △오목대 잔치(오목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조선왕조 본향 전주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념행사 전 마중잔치 및 전통놀이체험 △시민 참여 전승행렬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새왕조 역사길 오목대 트레킹'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경기전 광장에서 마중잔치와 전통놀이 체험으로 시작되며, 오후 2시부터 기념행사와 황산대첩 무예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후 태조 이성계와 이지란, 아지발도, 정몽주 등 주요 인물을 비롯해 취타대, 풍물패, 고려 병사, 시민 행렬단 등 120명이 참여하는 전승행렬이 경기전 광장에서 태조로를 거쳐 오목대까지 이어진다.

오목대에서는 이성계의 조선 건국 포부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대풍가'와 고려 충신 정몽주의 '우국시'를 활용한 대립 장면 등이 창작 판소리로 선보이며, 개선연회를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관광객과 함께 승전의 기쁨을 나눌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승 행렬에 함께할 시민행렬단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QR코드 또는 전화(063-255-5853)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오목대에 전해지는 태조 이성계의 승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어르신 운전 안전 지킨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선정 시민 27명 대상 설치



전주시는 2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에 대한 장치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

전주시는 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7번 주차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27명의 차량에 대한 장치 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면 시속 15㎞ 이하로 주행하거나 후진할 때 급가속 페달 작동을 제한하고, 주행 도로 규정 속도 및 4000rpm 초과시 과속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 급발진성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설치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운전면허 소지자 중 본인 명의의 2016년식 이후 비영업용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시민이다. 또, 해당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시는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모집·확정했으며, 한 번에 대상 인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거쳐 시간대별로 4명~5명 정도로 설치 인원을 조정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해당 장치를 1년 이상 의무적으로 장착·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백미영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안전과 이동권을 함께 고려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2개 사회복지관, 목재실내환경개선 사업 선정

총 3억2500만원 확보
평화·학산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선·친환경 공간 조성
이용 편의 증진·복지공간 확대

전주지역 2개 사회복지관이 친환경 복지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7년 목재실내환경개선 사업'에 평화사회복지관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돼 총 3억2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한 사회복지시설의 실내 환경을 친환경 목재로 개선해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복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2개 복지관 중 평화사회복지관은 235㎡ 규모에 1억5900만 원,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40㎡ 규모에 1억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실내 공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사는 향후 사업설명회와 현장 방문, 세부 사업계획 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개선된 공간은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복지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관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이웃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밀착형 복지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시민인문교육 '유쾌한 인문학' 시즌5 개강

1월 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전주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행복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민인문교육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올해 유쾌한 인문학에서 흥미로운 주제와 시민들이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과학철학, 동양철학, 삶과 글쓰기, 신화 등 다양한 인문학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5가 올해 준비된 마지막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5에서는 먼저 고전인문학으로 동양고전의 정수인 주역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형성 前 전남대 교수가 '주역의 원리 이행와 활용'(총 6강) 강좌를 맡는다.

이어 현대철학을 주제로 김영진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재 읽기'를 토대로 △근대 과학이 치른 대가 △존재가 아닌 생성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평소 인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자녀 양육 때문에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시간대(화요일 오후 7시)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인문학 '그림책으로 만나는 세상(철학)'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유쾌한 인문학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3만원(어린이 인문학=5000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eonju.go.kr) 또는 전화(063-281-5367)로 신청하면 된다.

김인택 전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AI-CCTV 활용 시내버스 승강장 안전 강화

AI기반 위험 감지와 음성안내

전주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CCTV를 활용해 버스승강장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에 나섰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보행자와 버스 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버스정류장 보행사고 예방 AI-CCTV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 승·하차 승객과 보행자, 주변 차량이 혼재하는 승강장 주변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AI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남부시장 승강장과 명주골네거리·대자인병원 승강장 등 2곳이다.

해당 승강장은 사전점검을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는 관계기관과의 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말 본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설치되는 AI-CCTV는 승강장 주변을 도로 구역과 연석 인근 구역, 승강장 내부의 안전 구역으로 구분해 보행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례로 보행자가 도로 또는 연석 인근의 위험 구역에 위치할 경우 음성 안내를 제공해 승강장 내부의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버스가 승강장에 진입하거나 정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달 말까지 차질 없이 대상 승강장의 AI-CCTV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CCTV 설치와 도입 효과 분석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어 시는 대상 승강장 관련 정보 제공과 시설 설치 협조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설치 이후 양 기관은 운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보행자 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승강장 안전관리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백미영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창작국악극 '훈민정음 자음별구역' 공연

11일 전주덕진예술회관
현대 사회의 문해력 저하
세대 간 단절 문제 조명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은 오는 11일 오후 7시 30분,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창작국악극 '훈민정음 자음별구역' 공연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다. '훈민정음 자음별구역'은 문자를 읽지만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인 현대 사회의 문해력 저하와 소통의 본질에 질문을 던지는 창작국악극이다.

공연은 조선 정조 시대 백성의 말을 기록하려는 이언과 가람, 이를 탄압하는 권력층과의 대립을 통해 오늘날 세대 간 단절과 소통 위기를 다층적으로 조명한다.

특히 대금·태평소와 현대 밴드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사운드, 계층 갈등을 시각화한 상하단 무대, 리듬에 따라 글자가 피고 지는 상징적인 영상 연출이 시청각적 몰입감을 더한다.

전통의 고유함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차오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한 글 읽기를 넘어 '서로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숙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은 "이번 공연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우수 예술단체의 깊이 있는 무대로, 세대 간 소통과 문해력이라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화두를 예술적으로 잘 풀어낸 작품"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덕진예술회관을 찾으셔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수준 높은 국악 공연을 즐기시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1만 원에 관람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반 1인) 50% 할인, 초등·청소년·대학생 및 전주시 다둥이 카드 소지자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예매는 나루컬쳐를 통해 진행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 겨울철 화재예방 총력

도내 15개 소방서, 11월 한 달간
화재예방 캠페인·교육 집중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11월 한 달간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79회를 맞은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5개 소방서가 참여해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홍보, 도민 참여 캠페인, 맞춤형 안전교육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11월 2일 도내 전역에서 화재예방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기차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의용소방대와 관계기관이 함께 화재예방 수칙을 알리고,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가정 내 화재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초등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전기·가스시설의 안전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가정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과 소방안전 상식 퀴즈 이벤트도 마련한다.

특히 겨울철 사용이 늘어나는 전기·난방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을 집중 안내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가정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가족이 함께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배울 수 있는 안전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진형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은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도민 모두가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군산해경, 두리도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구조

물 때 확인·구명조끼 착용 당부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60대 낚시객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께 두리도 북서쪽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가 낚시어선 B호 선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갯바위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군산해경은 새만금 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선박 2척과 인근 낚시어선 1척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오전 8시 55분께 인근 해양재난구조대가 갯바위 고립된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는 해상에 추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연안구조정으로 옮겨져 인근 항포구까지 안전하게 이송됐다.

군산해경은 낚시어선 B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 법률 위반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갯바위는 지형이 험하고 조류와 물때에따라 고립될 위험이 큰 만큼, 낚시객은 출조 전 기상과 물때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특히 낚시어선 선장은 승객의 하선 위치와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고립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전북서 시작한 마을자치연금, 전국 확산"

국민연금공단 '최우수상' 농촌 복지모델 선도 햇빛발전소로 상생 확대

전북 익산에서 처음 시작된 마을자치연금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농촌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완과 지역상생을 이끄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국 9개 마을 가운데 7곳이 전북에 위치해 있어 전북이 마을자치연금의 발상지를 넘어 사업 확산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달 30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이노비전 포럼'에서 사회적가치 경영 대상 최우수상인 한국공기업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는 전북에서 출발한 마을자치연금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상생 사업의 성과가 주요하게 반영됐다.

마을자치연금은 태양광 발전시설 등 마을 공동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 고령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마을이 자체적으로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주민 복지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개인 중심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21년 익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은 이후 완주와 고창 등 전북지역 농촌으로 확산됐다. 현재 전국 농어촌 9개 마을에 수익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 가운데 7곳이 전북에 집중돼 있다. 전체 사업 대상 마을의 약 78%를 차지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211명의 어르신이 마을자치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액은 마을별 발전 수익과 운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인당 월 6만~10만 원 수준이다.

비록 지급액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농촌 고령층에 매월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창출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환원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전북 농촌에서 공동체 중심의 노후소득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북은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섰다.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을자치연금이 개별 마을의 시범사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복지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전북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자치연금의 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자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상생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NPS 햇빛발전소'다. 시민 출자와 국민연금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민간기업의 기부를 결합한 사회공헌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전주에 위치한 공단 본사 옥상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525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21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나무 약 3만3천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투데이가 주최·주관했으며, '공공AX, 효율을 넘어 공공가치로-자율·책임·혁신, 공공기관의 새로운 균형'을 주제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상생하는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ESG 경영 모델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북전주농협>

북전주농협, 한옥애뜰 배 홍보 행사

판로 확대 나서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2일, 하나로마트 고양점에서 '제26회 한옥애뜰 배 홍보행사'를 개최해 북전주 관내 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전주 원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배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옥애뜰 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주 원동 배의 품질 경쟁력과 상품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전주 원동 배의 소비 활성화는 물론 생산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광 조합장은 "전주 원동 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판로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익산시, 현장 중심 취업 지원 확대

원광대 재학생 등 지역 우수기업 탐방

익산시가 지역대학과 손잡고 청년들이 지역 우수기업을 직접 경험하고 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원광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21일 원광대학교 부총장을 비롯해 교수진 등과 진행한 '일자리 맞춤형 인력연계 방안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논의된 지역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 향상과 대학·기업 간 현장 교류 확대 방안을 실제 탐방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했다.

탐방에는 원광대학교 재학생과 학과별 교수진 등 80여 명이 참여하며, 반도체·식품·주얼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역 우수기업 5개사를 방문한다.

첫날인 5일에는 동우화인켐과 신젠타코리아를, 12일에는 풀무원과 삼각에프엠씨를, 18일에는 스태리그룹을 차례로 찾는다.

참여 학생들은 기업별 주요 사업과 생산시설,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주요 직무와 채용절차, 인재상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기업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과 현장 실무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탐방이 청년들에게 지역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다양한 취업 기회를 알리고, 지역기업에 대한 취업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에도 지역의 인재를 알리고 교류할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는 취업 지원과 인재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익산시>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기업 탐방은 대학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협력 방안을 실제 현장으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학 및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쌀, 전북 우수브랜드쌀 선정

대상·최우수상 차지

군산시는 전북 우수브랜드쌀 평가에서 관내 브랜드가 2년 연속으로 대상과 최우수상을 모두 차지하며 또 한 번 군산쌀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2026년 전북 우수브랜드쌀' 평가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회현농협의 '옥토진미'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옥구농협의 '못잊어신동진'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상 선정 없이 도내 전체에서 오직 2개 브랜드만 최종 선정된 가운데, 군산시 소재 농협의 브랜드쌀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독점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군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재배 여건을 바탕으로 고품질 쌀 생산에 힘써온 지역 농업인들의 노력은 물론, 농협의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어우러져 이뤄낸 결실이다.

군산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산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발전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상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군산쌀의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산쌀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농협, 농산물 소비촉진 연계 오이 나눔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 돕기 활동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린 농특산물 신토불이 대잔치에서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이 생산농가를 돕기 위한 오이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최근 오이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약 15%, 평년동월 대비 약20% 가격이 감소했다.

이에, 전북농협은 농산물 소비촉진과 연계한 오이 나눔행사를 통해 소비자의 오이 소비를 확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 농산물 판매 부스를 방문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신선한 오이를 나눠주며, 오이 소비촉진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해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나눔행사가 오이 등 농산물 소비확대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농협>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고객제안 이벤트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2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고객의 불편사항과 개선 의견을 듣는 '내 생각이 쏙! 함께 만드는 쏙뱅크' 고객제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모바일 금융 플랫폼 '쏙뱅크'를 이용하며 느낀 불편사항과 새로운 기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해 보다 편리한 디지털 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응모일 기준 만 19세 이상 쏙뱅크 가입 고객으로 쏙뱅크 앱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건까지 제안 가능하다.

제안분야는 '찾기가 쉬워요', '쓰기가 불편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등 총 4개 분야로 고객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북은행은 접수된 제안의 구체성, 개선 아이디어,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45명의 우수 제안자를 선정 할 예정이다.

선정자에게는 롯데백화점 10만원 상품권(5명), 배달의 민족 5만원 모바일 상품권(10명), GS편의점 1만원 모바일 상품권(30명)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고객의 제안이 단순한 이벤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서비스 변화로 이어지도록, 선정된 우수 제안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쏙뱅크 서비스 개선 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느끼는 작은 불편과 일상 속 아이디어가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며 고객과 함께 쏙뱅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제61회 응급처치 경연대회

응급상황 신속 대응 및 처치 역량 강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지난달 31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제61회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북지사 응급처치강사 봉사회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소를 후원했다.

전북지역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일반인, 적십자 봉사원 등이 4명씩 총 94개 팀을 이뤘으며, 선수와 지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했다.

경연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기를 통해 참가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했다.

경연장 외부에서는 참가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병뚜껑 키링 만들기, 정신건강 퀴즈, 무료 먹거리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했다.

부문별 대상은 장수초등학교, 군산중앙중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군장대학교 간호학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익산시협의회 평화동봉사회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는 오는 7일 열리는 전국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졌다.

김홍식 회장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연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응급처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널리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천호성 "불법 선거 없었다, 당당히 임할 것"

출입기자단 차담회서 녹취록 등 선거 비리 의혹 정면 반박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2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를 갖고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불거진 선거 관련 녹취록 논란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천 교육감은 최근 공개된 선거 녹취록에 대해 "선거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녹음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참담하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선거 비용 구상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의 전후 맥락이 잘려나가 왜곡됐다"며 "법정 선거 비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뿐, 누구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선거를 한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곧 부르지 않겠느냐"며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는 마당에 피할 이유가 없으며, 불법 선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와의 관계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천 교육감은 "의회는 도민들이 뽑아준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존중하는 마음이 변함없다"며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익명으로 부패·비리 제보를 집중 접수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 깨끗한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장 지역 추천제와 도전학교 승진 가산점 제도 등의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학교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교육 가족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사진=전북타임스>



<사진=한중문화협회>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 선진지 견학

완도수목원 방문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은 지난달 29일 완도수목원을 선진지 견학했다.

이들은 완도수목원 길 가장자리에 식재 된 수국을 보면서 우리 동네의 수국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다고 다짐했다.

학마을계획추진단원들은 "수국 식재가 마을을 가꾸고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준다"며 "수국이 활짝 핀 제실공원 등 동네 인도 변에 빨강색으로 활짝 핀 꽃 무릇(상사화)를 볼 때 너무도 동네가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강 학마을계획추진단 총무는 "제실공원에 식재한 수국, 산수유 등에 물을 주고 제초작업을 하는 등 관리하며 쏟은 애정으로 더 이쁘게 자란 자태와 꽃에 반했다"고 덧붙였다.

또 학마을계획추진단원들은 "전주시민과 주민들의 힐링공간인 서서학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정철 기자

전국 시·도교총회장들 '교육재정 수호' 공동 결의

일방적 유보통합 및 초등 3시 하교제 중단 촉구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남윤제·세종교총 회장)가 지난달 30일 전주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재정 수호와 교권 보호,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재정 축소와 교원 감축이 지역교육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책 추진이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일방적 유보통합 중단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 및 서·논술형 평가 확대 중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적정 교원 확보 및 행정업무 이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총의 교권 보호 및 정책·교섭 활동 보장 등 7대 요구가 담겼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를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책임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노후시설 개선 등에 충분한 투자를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한 0~5세 일괄 유보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합의가 부족한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제'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재정을 지키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공동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부안군립농악단, 정기발표회 열려

부안군립농악단(단장 방상윤 부군수)은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6년 정기발표회 '추동화평(秋冬和平)'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서는 부안군립농악단의 역동적인 농악 공연을 비롯해 판소리와 전주시나위 여무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우리 소리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판소리와 전통 선율에 춤의 아름다움을 더한 전주시나위 여무를 통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농악의 신명과 판소리의 구성진 가락, 춤의 우아한 몸짓이 어우러져 전통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발표회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멋과 신명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 송치 철회 촉구"

"선거운동 혐의는 모순"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가 정재석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사건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전주지방공소청에 "공익적 검증 활동"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과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당한 공적 검증 활동을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으로 몰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이 후보자 비방 혐의는 불송치하면서 동일한 게시물에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재석 위원장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선거 관련 비판적 표현이나 정책 검증을 곧바로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각 게시물의 작성 맥락과 공익적 목적을 개별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송치가 교원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교육행정 감시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소청이 대법원 판례와 표현의 자유 가치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고창군 '덕천 정병갑 서화전' 개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덕천 정병갑 서화전'이 지난달 30일 막을 올렸다.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지부장 권애란)가 주관하고 고창군이 후원한 이번 전시는 많은 고창군민과 예술계 인사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직에 몸담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덕천 정병갑 작가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온 서예 활동의 결실을 세상에 선보이는 생애 첫 개인전이다. 한 자 한 자 먹을 갈고 붓을 내려오며 쌓아 올린 시간들이 예술이라는 찬란한 꽃을 피워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예술적 지지자인 아내 소현 심옥순 작가가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자리여서 의미를 더한다.

총 160여 점의 풍성한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정병갑 작가의 묵직한 서화 작품뿐만 아니라 심옥순 작가의 섬세한 한글서예와 수채화 작품까지 함께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에 이어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헌신해 주시는 정병갑 작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전시가 두 작가니께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이 되고 군민 여러분들에게는 일상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사색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2026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성황리 폐막

전북 생활체육인들의 한마당 축제인 '2026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이 사흘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도내 최강 동호인 클럽을 가리는 이번 왕중왕전은 지난 주말인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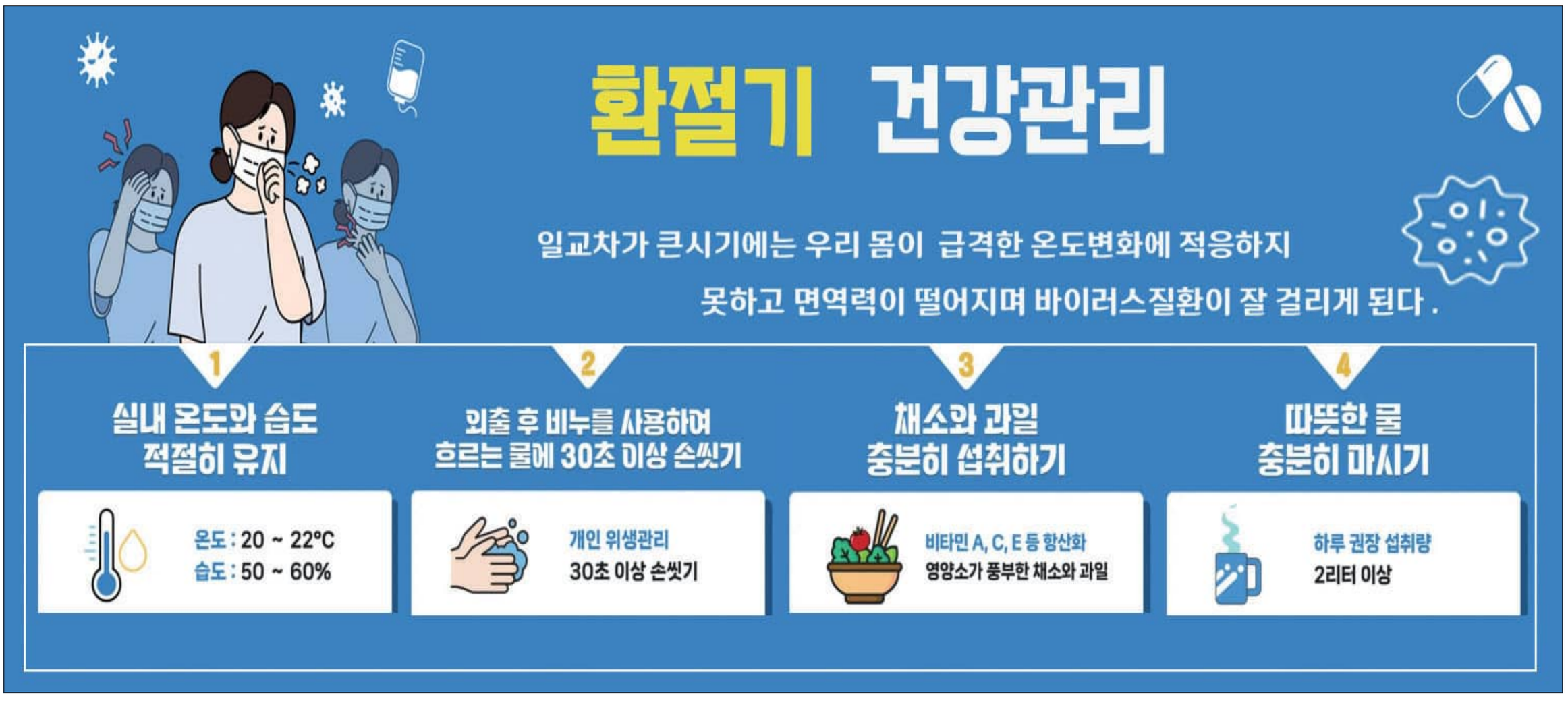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축구, 야구, 족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배구, 당구, 볼링, 파크골프 등 총 11개 종목에 도내 311개 클럽, 3,719명이 출전해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뤘다.

종목별 경기 결과 △게이트볼 남원 금동팀 △당구 익산 TOP팀 △배구 남자부 및 여자(2부) 전주 전동팀, 여자(3부) 전주 전라WIN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배드민턴 군산S배드민턴팀 △볼링 익산 컨트롤팀 △야구 김제 왕방울팀 △족구 전주 UG족구단 △축구 전주 새전북FC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또한 △탁구 남자부 전주 윤대선팀·여자부 전주 프렌즈팀 △테니스 군산 진포팀 △파크골프 김제 지평선팀이 각 부문 우승컵의 영예를 안았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군산시, 2026년 제3기 먹거리위원회 포럼 개최

군산시는 2일 '2026년 제3기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제3기 먹거리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먹거리 정책의 발전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제3기 먹거리위원회 운영 성과와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외식업체 및 집단급식소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확대, 산지유통개선 등 주요 사업을 살펴봤다.

아울러 먹거리 복지·돌봄, 교육·체험, 농가·가공 경쟁력, 소비 변화·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별 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제4기 먹거리위원회에 전달할 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역 농산물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제4기 먹거리위원회로 이어져 군산시 먹거리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용우 먹거리정책과장은 "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경찰서, 관계성 범죄 대응 전수점검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지난 29일 관계성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관계성 범죄 대응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대응 적정성과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수사 중인 사건,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안전조치 진행 대상자 등 총 76명으로 경찰서장을 비롯해 여청과·계장, 여청수사팀장, APO(학대예방경찰관) 등 직접 참여해 대상자별 관리 실태와 재범 위험 요인 및 피해자 안전조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강경남 정읍경찰서장은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지거나 강력범죄로 확대될 위험이 큰 만큼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친절·적극행정 실천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익산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현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문화 확산에 나선다.

익산시는 2일 오후 3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적극행정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 중심의 민원응대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향 한국CSM인재개발원 대표가 친절·적극행정 교육을 맡아 인사의 중요성과 시민 중심의 민원응대 자세를 설명했다.

특히 최정호 익산시장도 역할극에 직접 참여해 직원들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응대의 중요성을 되짚고, 일상 업무에서 친절과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어 임종근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가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민선 9기 시정철학인 '익산 대전환, 시민이 주인입니다'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 친절과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화재 위험 꼼꼼히" 2(題)

익산시, 공공청사 안전관리 강화

익산시가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본청과 북부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소화설비의 정상 작동과 비치 여부, 개인 전열기기의 무단 사용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등 소방·전기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청사 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공공청사의 소방·전기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지속적인 시설 관리로 시민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소방서, 화재 대응 합동훈련

정읍시가 정읍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과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했다.

2일 오후 2시 진행된 이번 훈련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방서와의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화재 상황 전파와 신고, 초기 화재 진압, 직원 대피 유도, 소화기 등 소방시설 활용, 소방서와의 합동 진화 등 주요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점검했다.

특히 화재 발생 초기의 신속한 상황 전파와 적절한 초동 조치에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화재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와 같은 재난은 사전 대비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읍소방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재정 체력' 입증

내년 세입예산 15억 ↑ 지방세 1,867억 확정

익산시가 자체 세입 기반을 안정적으로 늘리며 흔들림 없는 '재정 기초 체력'을 입증했다.

익산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액을 전년 대비 15억 원 증액한 '2027년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2027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전망액은 총 1,8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1,852억 원)보다 15억 원 증가한 규모로,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자체 조달이 가능한 '자주재원'을 견고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세는 국비나 지방교부세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에 좌우되는 의존재원과 달리 지자체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보통교부세 변동성 등 대외적 재정 충격을 막아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복지와 현안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이번 심의회에는 세무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민간 세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목별 세수 전망과 추계의 객관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 권의찬 세무사를 선출했다.

위원회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의 최근 3년간 징수 실적을 분석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비롯해 대형 공동주택 신규 입주, 부동산 경기 동향, 자동차 등록 대수 추이, 유류세 환원율 등 주요 변수가 합리적으로 반영됐는지를 집중 검토해 추계의 정확성을 인정했다.

시는 이번에 정밀 추계된 세입 전망을 토대로 2027년도 본예산을 빈틈없이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확보한 자주재원을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돌봄, 지역경제 활력 등 꼭 필요한 민생 현장에 온전히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익산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증액은 비과세·감면 사후 관리와 탈루 세원 차단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도시 기반의 자생력이 어우러져 거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체력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익산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도내 14개 시·군 중 종합 2위… 표창 수상

군산시는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내 14개 시·군 중 종합 2위를 차지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역량을 평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은 67개 정량지표를 관리하면서 65개 지표를 달성하며 97%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성평가 부문에서도 하반기 우수 시로 선정되는 등 종합평가에서 높은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부시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한 부진지표 집중관리, 직원 교육 및 컨설팅 정기 실시, 부서 간 협업 강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전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합동평가 성과 향상을 위해 전 부서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협업이 이뤄 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사진=군산시>

이어 "앞으로도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지황, 차와 체험으로 만난다

7일 농업유산 기념 한마당 개최

정읍 지황의 농업유산 가치를 차와 먹거리, 만들기 체험으로 만나는 한마당이 오는 7일 옛 정읍경찰서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다.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체(이사장 황윤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0호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 지정 기념 한마당'을 개최한다. 공식 기념식은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정읍 지황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고, 농업유산 보전의 의미와 지역 약용치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오랜 재배 경험이 어우러진 전통 농업체계다.

행사에서는 지황의 농업·문화적 가치를 소개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할 농업유산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자생차 시음·판매와 옛 정취를 살린 '옛날식 쌍화다방'을 운영한다. '지황꽃을 담은 나만의 무드등 만들기', '정읍의 향과 문화를 담은 한방 포푸리 만들기' 등 시민 참여 체험도 마련된다.

정읍 지황을 활용한 가공 상품과 전통 먹거리도 선보인다.

협의체는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약용작물 생산·가공·유통, 쌍화차 문화, 치유농업, 체험관광 등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2027년 이후에는 정읍 지황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약용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지황은 선조들의 지혜와 농업인들의 정성이 이어져 온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보전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인 만큼, 이번 행사가 정읍 지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약용치유산업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 달하미술관, 이세하 작품전

질서와 혼돈의 조화

정읍시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서로 다른 가치와 요소의 조화를 탐구하는 이세하 작가의 'Harmony-극 지방'전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선보인다.

지난 10월 22일 시작한 이번 전시는 올해 세 번째 지역작가 조명전시다. 달하미술관은 앞선 1·2차 전시를 통해 지역 작가들의 독창적인 조형 세계와 개성 있는 예술적 시도를 소개하며 관람객과 소통해 왔다.

이세하 작가는 음악에서 발견한 조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대립하는 가치와 경계 속에서 피어나는 균형을 탐구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와 설치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다양하게 풀어낸다.

전시는 휴관일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햇빛으로 인한 작품 손상을 줄이기 위해 연지·수성 달하미술관은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신태인 달하미술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

김장철 채소·낙엽 분리배출

군산시는 김장철과 가을철을 맞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와 낙엽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처리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처리 부담을 덜고,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배수구 막힘과 보행 불편을 예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김장철 채소 쓰레기는 배추 잔재물, 무청 등을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무색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평소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별도의 처리 비용 없이 수거한다.

낙엽 쓰레기 역시 다른 쓰레기(잔가지 등)가 섞이지 않도록 무색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엽 쓰레기의 수거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배출 시에는 채소 쓰레기와 낙엽 쓰레기를 각각 분리해 담아야 하며, 일반생활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별처리기간 종료 후 김장 채소 쓰레기는 기존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되, 흙이 묻거나 단단한 뿌리 등은 종량제 마대(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원활한 수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거기간과 분리배출 방법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 의견 청취

정읍시가 정읍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해 입암면 신면리 일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해제 검토 대상은 입암면 신면리 4번지와 1040번지, 1188번지 등 57필지, 10만 956㎡다.

시는 기업의 입주 수요 증가와 추가 수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첨단과학2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는 해당 계획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해 진행된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를 마친 뒤 농정심의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우량농지 확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용지 공급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대상지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와 공고 내용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11일 두 번째 타운홀미팅 개최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비전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익산시는 2일부터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두 번째 타운홀미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타운홀미팅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신동에 있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익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지난 9월 열린 첫 행사에 이어 시민과 주요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로드맵을 설명하고, 현장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익산의 미래 산업 육성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최정호 익산시장과 관련 전문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민들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직접 질문하고, 산업 육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익산시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네이버 폼 링크 또는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석 대상자에게는 10일 개별 문자로 행사 안내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국가 통계행정 역량 입증

농림어업총조사 기관 부문 전국 최고 대통령 표창 '영예'

부안군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6년도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유공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과 장관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가통계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기관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2025년 경제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주요 통계 3개 분야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기관과 개인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대규모 국가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행정역량은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기울여 온 현장 중심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지난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포상 전수식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 대규모 통계조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포상에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기관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 수상과 함께 2025년 경제총조사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각종 조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담당 공무원들까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면서 현장 실무진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함께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가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통계조사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현장 업무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최고의 포상이라는 점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조사 대상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조사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조사 업무의 완성도를 높였다.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단계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관과 조사원, 군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이번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농림어업총조사와 경제총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농어촌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 생산은 단순한 조사 업무의 성과를 넘어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부안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행정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통령 표창의 의미는 더욱 크다.

방상윤 부안군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통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들과 현장에서 발로 뛴 조사원, 담당 공무원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사진=고창군산림조합>

고창군산림조합, 소방안전교육 실시

겨울철 화재 예방 철저히

고창군산림조합은 지난 10월 30일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조하고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의용소방대 대장을 역임한 김영건조합장이 직접 강사로 나섰다.

주요 교육 내용은 △겨울철 화재 발생 원인 및 예방수칙 △소화기 올바른 사용방법 △소화기 외관과 압력계 등 점검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전기·난방기기 사용 시 안전관리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화기 사용방법과 관리요령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안전한 대피방법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창군산림조합장 김영건조합장은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평소 철저한 예방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과 조합 이용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청소년 성장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성료

부안군은 지난달 31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2026년 부안군청소년어울림마당 '우리들의 무대- 동아리발표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동아리 참여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부스와 동아리공연으로 구성해 그동안 동아리활동을 통해 익힌 솜씨들을 나누고 즐기는 흥겨운 발표회 무대로 꾸렸다.

특히 체험부스에서는 8개의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해 키캡꾸미기(사회비평동아리), 비누만들기(백의천사), 미디어먹방(오버레이), 티니핑 체험마당(월러스트). 나만의 mbti키링만들기(크리에이션), 세계 속 할로윈(저널리즘아고라), 나만의 타투만들기(SC), 음료제공(삼식당)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험 기회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군 청소년들이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특기를 계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선정

국가예산 171억 확보 상수도 유수율 향상

김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노후상수도정비사업 2027년 신규사업에 선정되며 국가예산 171억원(국비 142억원, 도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번 선정된 사업은 백구중블록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백구면, 공덕면 일원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28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노후상수도관 L=20.8km을 교체·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급수구역 조정을 위한 블록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동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37.9km)을 금년 4월 성과판정 심의를 통과해 유수율 93.3%를 달성했다.

또한 2025년부터 만경중블록(만경읍,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죽산면, 청하면 일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233억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388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이와 연계해 2026년부터 죽산중블록·금산소블록(죽산면, 부량면, 금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국·도비 121억원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3년 연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 전역의 상수도 유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사업 대상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해 백구면, 공덕면 지역의 유수율을 '25년 12월말 기준 62.1%에서 2032년까지 85%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통해 연간 약 12만4천㎥의 누수량을 줄여 연간 2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언제나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해경, 소리섬 인근 갯바위 고립객 구조

안전하게 육상 이송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원)는 지난 10월 31일 전북 부안군 소리섬 인근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A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부안군 소리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이 차오르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양경찰서는 즉시 현장으로 구조세력을 급파해 서프보드와 고무보트를 이용, 고립자 A씨를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송했다.

구조된 A씨는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안전하게 귀가 조치했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갯바위 낚시나 해안가 활동 시에는 반드시 물때(조석)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생명띠인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11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 큰기러기 선정… 홍보활동 나서

고창군은 11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큰기러기(학명 Anser fabalis)를 선정하고, 겨울철새의 생태적 특징과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큰기러기는 러시아 북동부 등 유라시아 북부 지역에서 번식한 뒤 우리나라를 찾아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겨울철새다.

국내에는 주로 늦가을에 도래해 겨울을 보내며 이듬해 봄 번식지를 향해 다시 이동한다.

이름처럼 큰 몸집을 지닌 큰기러기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갈색을 띠며 검은 부리 끝부분의 주황빛 무늬가 특징이다. 함께 겨울을 나는 쇠기러기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쇠기러기는 부리와 얼굴이 만나는 부분에 흰색 무늬가 있어 구별할 수 있다.

고창갯벌과 주변 들녘에서도 11월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큰기러기를 관찰할 수 있다. 갯벌 인근 농경지에서 벼 이삭과 풀뿌리 등 식물성 먹이를 먹고, 주변 염습지 일대에서 휴식을 취하며 겨울을 보낸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달의 새를 통해 군민들이 계절에 따라 고창을 찾는 다양한 철새의 생태와 특징에 관심을 가지고 고창갯벌의 소중한 생태적 가치를 함께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갯벌 홍보 프로그램 '호응'

생태적 가치 알려

전북 고창군이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6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 및 활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고창갯벌 청년캠프', '고창갯벌 사운드워킹' 프로그램에500명 이상이 참여해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배우고 자연유산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프로그램별로는 △고창갯벌 세계유산학교 △고창갯벌 청년캠프 △고창갯벌 사운드워킹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이달 말에는 어린이 레인져스 활동과 연계한 '고창갯벌 뉴락 프로젝트'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들이 생태예술가와 함께 해양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작품을 선보이며, 버려지는 자원의 새로운 가능성과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전할 계획이다.

나윤옥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고창갯벌의 가치를 공감하고 보전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금산면민의 날 빛낸 '고향 사랑'

김제시는 '금산면민의 날'을 맞아 금산면 출신 및 지역 연고자 4명이 뜻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총 2,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달 31일 면민들의 화합 축제인 '금산면민의 날' 행사가 열린 금산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주민들의 축하와 환호 속에 진행됐다.

기부에 참여한 4명은 △임영진 금산면 재경향우회장을 비롯해 △삼흥에 코그린 송명희 대표 △금산면에 소재한 원평지평선청보리한우촌, 비둘기농장 사장의 아들 이희성, 김영재다.

이들 4명은 2,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기부 혜택으로 제공되는 답례품 포인트 전액을 이번 금산면민의 날 행사를 위해 재기부하는 훈훈한 행보를 보여주며 지역 사회의 큰 귀감이 됐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뜻깊은 날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아 김제시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금산면을 위해 답례품을 기부해 주신 기부자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네 분이 보여주신 귀한 마음 덕분에 오늘 면민의 날 행사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었다"라고 화답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11월 의원간담회 총 16건 안건 사전 점검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지난 2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11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집행부 주요 현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11월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논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적으로 보호 · 지원하기 위한 △김제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오상민 의원), 주민 중심의 자치 분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김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승경 의원)이다.

또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정자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조례 발의와 함께 주요 시정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회의 소임에 충실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당부사항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일선지도자 화합의 장 마련

한마음대회 성료

부안군은 2일 부안스포츠파크 야외무대에서 이장과 남녀 새마을지도자 등 1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안군 일선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이통장연합회 부안군지회(회장 김성호)와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회장 권명식)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일선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근농인 재육성장학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 우수 일선지도자 표창, 대회사 및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또 기념식 마지막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새만금 부안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역 발전을 향한 뜻을 모았다.



<사진=부안군>

이어 13개 읍면이 함께하는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화합 프로그램이 펼쳐져 참석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권익현 군수는 "일선 지도자들은 주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이자 지역 발전을 이끄는 든든한 주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화합에 앞장서고 부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고창군은 상수도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노후시설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15.3%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용과 대중탕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진제도 폐지된다.

현재 고창군 수도요금은 전북 최고로 부과되고 있는 1260원보다 현저히 낮은 1톤당 480원으로 전북에서 제일 낮다.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30.3%에 불과해 수돗물 생산·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요금 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수도 공기업회계 적자 역시 100억원에 달하며, 매년 누적되는 적자를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상수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노후 상수도 시설 개량과 노후관 교체, 누수 예방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낮은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고 수도사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요금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노후시설 개량과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하고,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병행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겨울철 재난 선제 대응 강화 2(題)

남원시,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초소 확대

남원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기존 방역초소 1개소를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남 순천, 경기 김포, 용인 등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AI 국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남원시는 가축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지역 내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한 집중 방역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에 확대 운영되는 방역초소는 기존 남원가축시장 인근 1개소 외에 사매면 춘향폐차장 앞, 인월면 서무리 등 2개소의 거점 소독초소와 주생면 낙동리, 사매면 화정리 등 종오리 농장 통제초소 2개소가 추가로 운영된다. 초소에서는 축산차량의 소독 및 통제, 출입 인력 대인 소독, 방역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겨울철 야간이나 도로변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초소의 특성을 고려해 초소 근무자 안전관리도 강조했다. 사전 안전교육 및 방역복과 마스크·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과 안전표지판 설치, 빙판길 사고 예방 등 겨울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요령을 근무자들에게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는 단 한 번의 방심으로도 지역 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모든 가금 농장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AI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폭설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

순창군이 겨울철 기습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차량 고립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구림면 운항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2026년 대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 고립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제설작업과 인명구조, 교통통제 등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순창경찰서, 순창소방서, 제7733부대 3대대,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을 펼쳤다.

이날 훈련은 시간당 10cm의 기습폭설이 내린 가운데 구림면 운항마을회관 인근 급경사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막고, 운전자 부상과 차량 고립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재난 상황 전파부터 교통통제, 부상자 구조, 제설작업, 주민대피, 교통정상화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집중 점검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겨울철 폭설에 따른 도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수배 전국 중학생 e스포츠대회 '열전'

완주군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제3회 완주군수배 전국 중학생 이(e)스포츠대회'가 전국 청소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을 이뤘다.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2개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앞서 지난 10월 10일 열린 온라인 예선에 총 26개 팀, 140명이 참가해 치열한 승부를 벌였으며, 종목별 예선을 통과한 본선 진출 팀들이 이날 결선 무대에서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열띤 접전 끝에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에서는 전북 순창의 '순창고추장' 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충남 당진의 '케이알원(KR1)' 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발로란트' 종목에서는 대전의 '액시스(AXIS)' 팀이 1위, 경북 구미의 '현일중' 팀이 2위, 전남 목포의 '싱크대' 팀이 3위에 올랐다. 전국 5개 지역에서 고루 수상팀이 나오며 명실상부한 전국 청소년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e)스포츠는 청소년들이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꿈과 역량을 키우고 미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성장의 기반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 부여

남원시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은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제한 지역 내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조안전·위생·방화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신고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추어 남원시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상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농업인단체와 현장 애로·정책 개선 모색

농업인단체 대표 참여 간담회 친환경 생산장려금 지원 등 건의

남원시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양충모 시장과 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농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주요 현안을 직접 듣고 농업인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4-H 남원시본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남원시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남원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회 남원시연합회, 남원시 쌀전업농연합회, 한국여성후계농업인 남원시연합회, 남원시 친환경농업협회, 남원시 축산단체협의회 등 지역 농업인단체 회장과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영농환경 변화와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농가소득 증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남원시>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생산장려금 지원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사후관리 강화 △여성편의장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재검토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027년 사업 예정지로는 운봉읍 권포지구, 송동면 부석지구, 동서내지구, 금지면 방촌지구, 대산면 금강지구, 대산옥전지구, 사매면 오현지구, 보절면 벌촌지구, 도촌지구, 용평지구, 아영면 청계지구, 일대지구, 의지구, 율동지구, 서정지구, 산내면 대정지구, 고죽동 고산지구 등 총 17개 지구를 선정했으며 국비 13억 8,300만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추진 절차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동의서 제출 협조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5일 일대지구를 시작으로 13일 옥전지구까지 마을별로 진행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월드비전 공모 선정 위기아동 생계비 지원

완주군이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가 추진하는 '위기아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식료품비와 도시가스·관리비 체납액 등 총 140만 원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했다.

군은 아동 양육과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에 임했다.

지원 대상 가정은 아버지의 사업 부진으로 생계 곤란이 가중된 데다 어머니 역시 채무를 갚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변제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두 자녀 중 둘째 아이가 두개골 함몰로 긴급 수술을 앞두고 있어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생활고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었다.

생계비를 지원받은 어머니는 "아이들의 건강과 생계 걱정으로 눈앞이 캄캄했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 큰 힘을 얻었다"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혜란 아동친화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자녀의 건강 문제까지 겹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전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가정을 조기에 발굴하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부담 던다

순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군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와 출국항공료 등을 지원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에 산재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인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 급여와 체류기간, 보험료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올해 농업 분야 산재보험료율인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성실하게 근무를 마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출국 항공료의 50%를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한다. 항공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 출국 최소 3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시기가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 최근 5년간 보조금 수령액이 적은 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특히 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역량강화 과정을 수료한 농가에는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수배 전국파크골프대회 개최

전국 동호인 1230여명 예·결선 참가 36홀 공인구장 기반 전국대회 본격

순창군은 오는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섬진강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순창고추장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창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순창군과 대한파크골프협회, 전북특별자치도파크골프협회가 후원한다.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1,230여명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참가하며,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예선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결선으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전은 남녀 개인전 18홀 경기로 치러지며, 결선 진출자 640명은 이틀간 총 36홀 경기를 통해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총상금 규모는 4,960만원으로, 결선 최우수선수(MVP)에게는 1,000만원, 남녀 우승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지난 2024년 18홀을 개장한 데 이어 올해 9월, 18홀을 추가 조성해 총 36홀 규모로 확장 개장했다. 또한 개장과 동시에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구장 인증까지 획득하면서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섬진강변에 자리한 파크골프장은 경기장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이 자연스러운 그늘을 형성하는 데다 강변을 따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36홀 확장 개장 이후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이용객이 5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힐링공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파크골프협회는 참가자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해 관내 음식점과 상가 이용을 유도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구이저수지 둘레길걷기 500여명 '발걸음'

지난달 31일 열린 '제13회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행사'에 주민과 방문객 500여 명이 참여, 가을 정취 속에서 성황을 이뤘다.

완주군 구이면과 구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걷다 보니 구이, 웃다 보니 행복'을 표어로 내건 이번 행사는 구이면 임시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해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까지 이어지는 4.7km 구간(약 90분 소요)이다.

이날 수변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덜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행사에 앞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둘레길 내 잡목과 가시덤불을 정비하고 데크 보수 작업을 직접 도맡는 등 자발적인 구슬땀을 흘려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 환경을 일궜다.

흥겨운 식전 농악 공연과 개회식으로 문을 연 데 이어, 목적지인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에서는 풍성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펼쳐졌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실속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었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관내 맛집과 카페 등 22곳에서 올해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구이면 지역사랑 4,000원 할인권' 600장을 배부해 지역 경제 활력을 모색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삼례 예술촌 보부상마켓 1만 3천여 명 방문 '성황'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열린 '2026 보부상마켓 with 완주몰'이 지난달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1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을 불러 모으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는 첫날 8천여 명에 이어 둘째 날 5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장터에는 전국 각지의 실력파 판매자 80곳이 참여한 '보부상마켓'과 완주경제센터 협업으로 꾸린 '완주몰 마켓' 12개 부스 등 총 92곳이 둥지를 틀었다. 삼례문화예술촌 잔디광장과 입구 일원에서 완주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수공예품, 의류, 먹거리 등을 다채롭게 선보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은 사전에 마련한 교통·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현장 응급의료진과 안전요원을 곳곳에 배치해 빗길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 유치를 통해 삼례권역 관광 활성화와 완주의 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읍면 복지행정 현장 대응력 높인다

통합조사업무 읍면 순회 간담 마쳐 내년 '신청주의 개선' 앞두고 정비

완주군이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는 '2026년 통합조사업무 읍면 순회 간담회' 일정을 마쳤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시 유의 사항과 수시 조사에 따른 변동자료 처리 절차를 짚어보고, 부정수급 예방 수칙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연찬을 심도 있게 다뤘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 및 긴급복지지원 연계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특히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정부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청과 읍면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눴다. 신청 접수부터 조사, 결정에 이르는 업무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선을 미리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공유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서금란 사회복지과장은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군민이 없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제35기 장수귀농학교 성공적 마무리

장수군은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한 '제35기 장수귀농학교'를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총 22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도시민과 장수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 등 교육생 28명이 참여해 전 과정을 수료했다.

군은 교육생들이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현장 체험을 아우르는 9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교육 내용은 △장수군 귀농·귀촌 정책 안내 △농업의 가치와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최훈식 군수는 "맑은 공기와 풍부한 농업 기반을 갖춘 장수군을 찾아주신 교육생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수료생들이 장수군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후 지원과 맞춤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지적재조사 완료 디지털 토지정보 구축

진안군이 진안읍 군상4·7지구와 백운면 반송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1,539필지의 토지 경계를 새롭게 확정했다.

2025년 착수해 2026년까지 추진한 이번 사업은 일필지 측량과 토지 소유자 협의를 거쳐 기존 1,472필지(530천㎡)를 1,539필지(529천㎡)로 정비했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반영해 경계를 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했다.

이번 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사업 완료에 따라 기존 종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디지털 지적공부로의 전환을 완료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별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생활체육공원 낙엽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을 찾아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군민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챙기거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이 군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실군 생활체육공원은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배드민턴·테니스·탁구·피구·씨름 전용 체육관과 수영장, 야외 테니스장, 풋살장, 황토길 등 다양한 체육·여가시설을 갖추고 있어 군민들이 취향에 따라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에 시설사업소는 가을철 이용객 증가에 맞춰 산책로 주변의 낙엽 송풍작업을 실시하고, 체육시설과 공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설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살피는 등 군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인다

온라인마케팅 활동 비용 50% 지원 최대 70만원 11월 20일까지 신청받아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홍보를 위한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열린장터(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 활용 온라인 홍보 소요 비용의 50%(최대 70만 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2025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신청은 오는 20일(예산 소진 시)까지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등을 제출(상세 구비서류 공고 확인 또는 관련 부서 문의)하면 된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업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온라인마케팅 외에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 원), 특례 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귀촌 유입 정책 성과 인정

2026 수원 케이팜 박람회서 귀촌 유입 부문 최우수상 도시민 대상 프로그램 등 호평

진안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6 수원 케이팜(K-FARM)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시상식에서 귀촌 유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각 기관의 중점 지원사업과 정책 방향, 확장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됐으며, 진안군은 귀촌 유입을 위한 정책과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수리 및 신축 지원, 창업 지원 사업 등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귀농·귀촌 전 과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진안군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열린 '2026 수원 케이팜(K-FARM)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시상식에서 귀촌 유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진안군>

지난 3월 서울에서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정책 상담과 치유농업·산림경영 특강을 진행했으며, '꽃중년 한 달 살아보기'를 통해 참가자들이 지역 멘토와 함께 진안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5월 부산 벡스코와 7월 서울에서 열린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진안의 지원정책과 생활 여건을 알리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장수형 통합돌봄' 강화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 논의 올해 성과 공유 방문형 신규 특화사업 검토

장수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2026년 통합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수형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에 본격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의료·보건·복지 분야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추진해 온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관련 업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했다.

군은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대상자 220명에게 총 681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내 양·한방 의료기관 5개소가 참여하는 방문진료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병원 동행과



가사지원, 도시락 배달,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요양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17명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했으며, 주민 주도형 독거노인 공동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강화와 돌봄 대상자 발굴 경로 확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비스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도 신규 특화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신체기능 회복을 돕는 '방문운동지도사업'과 구강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문구강건강(틀니)관리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

군은 논의된 의견을 2027년 통합돌봄 지역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의료·돌봄 자원을 보완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 잇단 흥행

반려동물친화도시 경쟁력 입증

임실군이 가을철 반려동물 특화 관광 콘텐츠를 잇따라 흥행시키며 '반려동물친화도시 임실'로 도약하는 발판을 다졌다.

2일 군에 따르면 10월 초 '오수 반려누리 체험'을 시작으로 연이어 진행된 가을철 반려동물 특화 관광 콘텐츠들이 높은 호응 속에 지난 달 31일 '제2회 반려동물 동반 오수 할로윈 펫페스타'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이동부터 관광, 체험, 캠핑, 문화콘텐츠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해 임실만의 독창적인 펫 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다.

먼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오수 반려누리 체험'은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해 전문 훈련사의 행동교정 미니상담 및 기본 행동교육을 비롯해 반려문화 전시실, 오수개·사모예드 교감존, 이색 반려동물 체험 등을 선보이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 반려동물 쉬터 및 홍보관'에서는 축제장 내 파라솔 및 미니 텐트 쉼터, 반려견 캐리커쳐 공방, 보물찾기, 이동편의 물품 대여를 제공하고 보호동물 입양 상담 및 세계명견 테마랜드 홍보관을 함께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오수의견 캠핑장 할로윈 펫페스타'는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할로윈 거리장식, 할로윈키링제작, 페이스페인팅, 오픈토크쇼, 펫미용 부스, 반려동물 음악회 및 마술쇼 등을 펼치며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 농식품, 광주 마켓서 소비자 만났다

진안군 농식품 가공업체 ACC 별별브릿지마켓 참가

진안군 농식품 가공업체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열린 별별브릿지마켓에 참가해 진안의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을 선보였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 ACC 별별브릿지마켓에 외나드리 산방, 덕분에강정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2곳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이 추진한 '2026년 농식품 가공 상품화 컨설팅' 사업의 마무리 과정으로 마련됐다.

컨설팅을 통해 개발·개선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고, 현장 판매와 홍보를 통해 상품의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컨설팅은 관내 가공업체 6개소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17회(개소당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존 가공 제품의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선호와 수요에 맞춘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에 참가한 외나드리산방은 산나물과 고구마스틱, 감말랭이, 덕분에강정은 쌀강정과 옛날과자를 판매했다.

제품의 품질과 포장, 가격,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판로 확대와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현장 경험이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촉구

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

임실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실군 선정 및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존립 위기에 처한 농어촌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실군은 이미 자체 예산을 투입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책 실행력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적지임을 밝혔다.

이에 임실군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임실군을 반드시 선정할 것, △일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즉각 제정할 것, △명확한 국비·지방비 재정분담 원칙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선옥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는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임실군이 2027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되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통합건강증진사업 주민 수요조사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기대

무주군이 2027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민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https://moaform.com/q/K2bijk 또는 무주군청 누리집·공식 SNS에 게재된 QR코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은 무주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와 보건의료원 방문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과 나이, 거주 지역(읍면), 주관적 건강 상태 등 일반 사항과 기존 서비스 이용 경험과 만족도, 필요 사업 및 선호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금연 클리닉 인지도를 비롯해 금연 사업 활성화 방안, 모바일 걷기 앱 인지도, 걷기 실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민 의견도 받을 예정이다.

김미화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무주군은 군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금연, 절주,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설문조사는 건강 증진 서비스 이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계획 수립에 활용해 군민 모두를 위한 지역 연계형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큰나무 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 조성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작업 실시

임실군이 산림자원의 건강한 성장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큰나무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총사업비 7,300만원을 투입해 18ha 규모의 산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6ha 규모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데 이어, 올해 사업 역시 11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완료 후 5~10년 이상 지난 산림으로, 군은 솎아베기와 가지치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 작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밀식된 나무 간의 경쟁을 완화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기후변화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한우협회 완주군지부, 아동 위해 한우 기탁

5년째 나눔 활동 지속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지부장 정봉락)가 2일 완주군청을 찾아 관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불고기용 한우 108kg(480만 원 상당)을 완주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정봉락 지부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온정을 나눴으며, 기탁된 한우는 저소득가정 아동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등에 고루 전해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의 나눔 행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부는 2022년 소불고기용 한우 101kg(400만 원 상당)을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52kg(500만 원 상당), 2024년 194kg(600만 원 상당), 2025년 147kg(500만 원 상당)을 후원하는 등 매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축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정성껏 키운 한우를 지역의 미래 세대와 나누며 상생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눔 문화 확산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가 2일 완주군청을 찾아 관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불고기용 한우 108kg을 완주군에 전달했다 <사진=완주군>



고창 공음면, 직원과 주민이 함께 '똘뚝산 친환경 플로깅'

고창군 공음면(면장 김애숙)이 지난달 30일 공음면 똘뚝산(일명 서당산)일원에서 1면 1산 가꾸기'의 일환으로 '직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음면 똘뚝산 친환경 플로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음면 직원들과 박광식 면민회장을 비롯해 박순애 똘뚝산 산악회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산행을 즐기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쳤다.

박광식 공음면민회장은 "주민과 면 직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우리 산을 가꿀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순애 똘뚝산 산악회장 역시 "앞으로도 지역의 아름다운 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활동에 주민들과 산악회가 앞장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환경정화를 넘어 민·관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고장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화합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소룡동지사협, 저소득 가정 1박 2일 힐링여행 지원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관내 저소득 가정 8가구를 대상으로 천년고도 경주 일원에서 가족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힐링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소 생계와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 활동을 누리기 힘든 취약계층에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화사업이다.

참여 가정들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주를 찾아 △국립경주박물관 △첨성대 등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송정석 민간위원장은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월남전참전자회 정읍시지회, 대전현충원서 전우 추모

자유와 평화 소중함 되새겨

월남전참전자회 정읍시지회(회장 권동임) 회원 110명이 국립대전현충원과 청남대를 찾아 호국영령과 전우들의 희생을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이번 안보현장체험은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들의 자긍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먼저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잠든 묘역을 찾았다. 헌화와 묵념으로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우들을 추모했다.

이어 청남대로 이동해 역사와 의미를 살펴봤다. 참전용사들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우의를 다지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정읍=김정인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이강열 임실군협의회장 국민훈장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이강열 회장이 지난달 26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오늘의 바르게, 내일의 희망찬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강열 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를 이끌며 진실·질서·화합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화합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왔다. 또한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에 앞장서 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임실=한병열 기자



김제스포츠클럽, 마라톤대회 기념품 기탁

김제시는 김제스포츠클럽(회장 홍경수)이 2일 지평선쌀 250포(4kg, 총 1,000kg)를 금구면과 신풍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고, 김제사랑상품권 160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일 개최된 '제25회 새만금지평선 전국 마라톤대회'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기념품 가운데 미참가자의 기념품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사전 안내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홍경수 김제스포츠클럽 회장은 "전국에서 김제를 찾아주신 참가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대회를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스포츠가 시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대형공구, 익산 취약계층 위한 생필품 기탁

익산시는 2일 대형공구(대표 이기형)가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돕기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시 부송동에 위치한 대형공구는 산업용 공구와 철물 도소매, 정밀 공구 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이번 기탁은 이기형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후원 물품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필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이기형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성원 속에 사업장을 운영해 온 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며 "준비한 생필품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진안 백운면지사협 1박 2일 청소년 캠프 열어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백운면 신암리 데미샘계곡펜션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캠프를 열었다.

'함께라서 더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감·소통 교육, 숲속 별빛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서는 이음심리연구소 김채리 강사를 초빙해 또래 관계에서 필요한 소통 방법과 공감의 중요성을 배우고, 다양한 사례와 퀴즈, 감정 나누기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숲속 별빛 산책, 모닥불 파티, 보드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며 추억을 쌓았다. 과거 캠프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된 후 자원봉사자로 다시 참여해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진안=전길빈 기자



〈一事一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우회 지원' 의혹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스타트업 해외 판로 개척 미명 아래 편법 계약과 '나눠먹기' 관행 자행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은 언제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 철칙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본보 보도를 통해 불거진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 관련 수억 원대 우회 지원 의혹은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고귀한 목적이 특정 민간 조직이나 대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적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수년간 국·도비 등 막대한 공적 자원을 투입해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을 주도해 왔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식 공공계약 절차나 공정한 경쟁 입찰 단계를 비켜간 채, 특정 기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북대학교와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도내 타 유관기관들이 주관한 유사 사업에서도 대행사 독식 및 편법 예산 집행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이번 사태는 일선 공공기관들의 예산 집행 시스템이 얼마나 안이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예산은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채워진다. 특히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경제적 약자인 스타트업을 뒷받침해야 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명한 계약 원칙을 무시하고 '깜깜이 집행'의 온상이 되었다면, 이는 기관 존재 이유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다. 공정해야 할 공공의 자금이 특정 세력이나 연고 관계에 따라 우회 지원되었다면 이는 행정의 타락이자 엄중한 법적·도덕적 책임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성역 없는 감사·시스템 전면 개혁 공공기관 신뢰를 되찾는 길

이번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무너진 공공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22년부터 집행된 메가어스 관련 예산 전반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감사와 자금 흐름 추적이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감사 권한을 동원해 지난 수년간 투입된 국·도비의 정산 내역, 계약 체결 과정, 특정 대행사 선정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단 한 푼의 혈세라도 목적 외로 유용되었거나 편법 계약 정황이 드러난다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즉각 환수 조치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번 사건이 비단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님이 증명된 만큼, 도내 유관기관들의 해외 마케팅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계약 시스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북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민간 위탁 및 대행 용역 계약에서 수의계약 남용을 원천 차단하고, 철저한 공개 경쟁 입찰과 투명한 사후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구조적 대수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원 사업의 본질을 되살려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과 유관기관의 실적 채우기나 특정 대행사 배불리기로 전락한 전시성 글로벌 행사를 과감히 도려내고, 예산 집행 과정을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재편하는 결단이 절실하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80%의 혁신적 창업 지원을 응원함과 동시에, 부패와 편법을 파헤치는 20%의 날카로운 감시와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사법당국과 도정은 이번 우회 지원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고, 추락한 공공기관의 도덕성을 바닥부터 다시 다져야 할 것이다.

사 설

새만금 수질개선 우분 연료화, 경제성 확보가 관건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수질개선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우분 고체연료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가축분뇨를 단순히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아닌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환경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전북도는 오는 2031년까지 총 1,988억 원을 투입해 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5개 지역에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루 810톤의 우분을 처리해 새만금 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축산업이 발달한 전북의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문제는 생산된 고체연료의 안정적인 수요처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느냐는 점이다. 전북도는 발전소와 집단에너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생산시설부터 확충한 뒤 구매처를 찾는 방식이라면 자칫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장기 구매계약과 적정 판매가격을 확보하는 일이 시설 건설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분은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와 가공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수거·운반비와 시설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전북도는 톤당 생산원가와 예상 판매수익, 시설 가동률, 운영비 부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수질개선 효과 역시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 시설 처리용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가축분뇨의 연료화 전환량과 총인·총질소 저감 실적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규제특례 종료 이후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분 고체연료화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투입 예산이나 시설 규모가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개선과 경제적 성과에 달려 있다.

전북도는 사업 확대에만 속도를 낼 것이 아니라 판로 확보와 경제성 검증, 수질개선 성과 관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 오늘의 시

산국화 / 김 남 주

서리가 내리고
산에 들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찬서리 내려 산에는
갈잎이 지고
무서리 내려 들에는
풀잎이 지고

당신은 당신을 이름하여 붉은 입술로
꽃이라 했지요
꺽일 듯 꺽이지 않는
산에 피면 산국화
들에 피면 들국화
노오란 꽃이라 했지요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전남대 영어영문과를 졸업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구속되고 대학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잿더미' 등 7편의 시를 발표했다. 1978년 남민전에 가입, 활동하다 체포되어 구속됐다. 이후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출간했다. 1988년 형 집행 정지로 9년 3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1994년 지병으로 사망,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됐다.

| 독자투고 |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과거에는 어색한 말투로 송금을 요구하여 조그만 관심을 기울여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를 소개하며 대금이나 비용을 선입금 요구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문자메시지로 가짜 링크를 만들어 보내는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점차 고도화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나 링크는 의심하고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이 보냈더라도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클릭하면 즉시 112신고 하고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후 경찰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공무원 사칭이나 관공서 사칭, 노쇼사기는 반드시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관공서 등은 민간인에게 물품대리 구매를 요청하지 않고 개인 계좌나 연락처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의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작은 의심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경감 이덕환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내 집에서 이어가는 존엄한 삶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강화

정읍시가 노쇠와 장애,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시민이 평생 살아온 집과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와 건강관리부터 식사, 가사, 주거환경 개선까지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익숙한 생활터전에서 일상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 시행되면서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작됐다. 시는 2024년과 2025년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55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5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돌봄은 어르신 등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본사업 원년을 맞아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대상자와 지역특화서비스를 확대해 정읍형 통합돌봄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편집자 주〉



올해 554명 지원·지역특화서비스 10종 운영
의료부터 식사·주거까지 연계
전담조직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2027년 노인·중증장애인 1천명 지원 목표

■ 전담조직과 23개 읍·면·동 연결…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돌봄의 출발점은 대상자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있다. 기관과 부서별로 나뉜 서비스만으로는 건강과 주거, 일상생활에 걸친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정읍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1일 '통합돌봄 TF팀'을 설치해 전담인력 3명을 배치했다. 시가 사업을 총괄하면서 23개 읍·면·동과 조사 전문기관, 보건소, 공공 사업부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하는 구조다.

전담조직은 지역계획 수립과 대상자 신청·발굴, 욕구·상황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운영, 서비스 제공 의뢰와 사후관리를 맡는다. 지원 이후에도 대상자의 욕구와 생활 변화를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이다. 노인은 본사업으로,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은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 국가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결하고, 기존 서비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특화서비스로 보완한다.

시는 국가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이 필요한 시민 가운데 '우선돌봄 필요군'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자 5445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330명 ▲장기요양 등급외자(A·B) 840명 ▲퇴원환자 1629명 ▲고령장애인 3656명 등 총 1만 1900명이 해당한다. 본청과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현재까지 720명을 발굴했다.

■ 공공·민간 34개 기관 협력…지역 안에서 돌봄 자원 확충

행정의 지원체계가 실제 생활 속 돌봄으로 이어지려면 지역사회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공공·민간위원 26명으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정읍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복지환경국장과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연 2회 운영하며 정책 자문과 기관 간 협력, 지역계획 심의 등을 담당한다. 조사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정읍지사와는 상시회의와 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는 종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읍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과 서비스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27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34개 기관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 정기 간담회와 정책 공개 토론회(forum) 등을 통해 통합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연계할 계획이다.

■ 의료·식사·주거를 함께 지원…생활에 맞춘 10종 서비스

정읍형 통합돌봄은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바람을 구체적인 생활 지원으로 연결한다. 시는 국가돌봄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한 5억 9000만원을 투입했다.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5개 분야의 지역특화서비스 10종을 개발해 500여명에게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물리치료사가 관절운동 등을 돕는 '방문 건강운동서비스'와 대상자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하는 '방문의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는 의뢰 병원에 보상(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다제약물 방문 복약지도'는 약물관리와 처방조정 등을 지원한다.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도 마련했다. '틈새요양 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사와 청소를 지원하고, '건강맞춤 영양식사서비스'는 밑반찬 5종을 배달한다. '방문 목욕서비스'와 '방문 이미용서비스'는 생활 관리를 돕고, '통합돌봄 건강지킴이'는 건강 확인과 정서지원을 제공한다. '안심 주거환경 개선서비스'는 낙상 예방과 위생관리를 지원한다.





지역특화서비스에는 사업 지침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 일반 대상 가구는 100%를 부담한다. 지역특화서비스로 충족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에는 고향사랑기금 등을 활용한 병원 동행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올해 사업 안정화, 내년 1000명 지원으로 확대

시는 올해를 사업 안정화 단계로 삼고 2027년에는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종합평가에서 대상자 만족도와 삶의 변화, 제공기관의 개선 의견을 조사하고 결과를 내년도 통합돌봄 지역계획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에는 추진체계 구축과 지역특화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 예산이 확대되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지원 기간도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인 중증장애인 통합돌봄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만큼, 노인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을 포함해 총 1000명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쌓은 경험과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시민이 지역 안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지원체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지역사회의 '하나의 마을'이며,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마을'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시켜 더 많은 어르신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